

# “새만금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조성을”

### 박재만 의원, “산업연구원이 도에 15조원 규모 국책 프로젝트로 공개 제안… 기반 마련돼 있어”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1·사진)은 새만금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일 “전라북도가 지난 13일 ‘전북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다”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전북도에 국책 프로젝트의 하나로 15조원 규모의 ‘새만금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조성’을 공개 제안했다”고 전했다.

새만금은 군산과 완주지역에 이미 상용차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로 조성하는데 지역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제안이다.

특히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려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이 필요한데, 새만금이 이를 수행하는데 최적지라는 것이다.

나아가 새만금이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되면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돼 산업입지의 경쟁력과 함께 국가차원의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와 한국경제(2016.8.8일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시장규모는 2015년 30억 달러(3조 3,000억원), 2025년 960억 달러(107조 1,000억원), 2035년에는 2,900억 달러(323조 6,000억원)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로 추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 브레이크, 페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센서를 통해 주변 상황을 파악해 장애물을 피하고 목적지까지 최적의 주행 경로를 선택하여 자

동으로 주행한다.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차선유지 지원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량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등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방지 등 운전 스트레스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데서 미래산업의 대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 양향자 “호남 반문 정서 총선 때보다 누그러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과 관련, “반문 정서는 4·13 총선 때보다는 많이 누그러졌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권교체 열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며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호남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고려해 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호남에선) ‘당을 바꿨는데 사람도 그대로고 정치도 그대로다’ 이런 말 씬들을 많이 하신다”고 호남이 국민의당에 실망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뉴스

### 김춘진 “쌀 수매 제도, 생산량 근거해 결정해야”

#### 쌀값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 촉구… 북한 지원·대체작물·휴경제 등 주장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1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추석민심을 전하며 쌀값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춘진 최고위원은 “쌀은 풍작을 이뤘지만 쌀값은 사상 최악으로 하락해 농도인 전라도는 더욱더 어려워졌다”며 “현실적인 쌀 수매량과 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춘진 의원은 “현재 전년도 수매량을 기준으로 쌀 수매량을 정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수매량이 적은 지역은 올해에도 적게 수매하고 내년에도 적게 수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따름이다”며 “쌀 수매량

을 결정할 때 생산량에 근거하여 수매량을 결정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140만 톤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며 “이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쌀값 폭락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적

극적인 지원”과 “휴경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을러, 김 의원은 “콜레라 발생 등으로 인해 전어는 작년보다 많이 잡히고 있지만 사람들의 소비는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농어민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소득보장을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지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북의 경우 쌀 생산량은 전국 대비 16.5%인데 반해 수매량은 14%에 그쳐 타 지역에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광영 기자

### 이해찬, 충청대당론 견제 ‘관심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해찬 무소속 의원의 복당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이 의원이 여권의 대선 집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충청대당론을 견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복당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또한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 기대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이 기대하는 이 의원의 역할은 충청권 공략, 이른바 ‘반기문 저격수’다. 최근 충청권 맹주인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반 총장에게 “혼신을 다해 뚫겠다”고 밝히면서 ‘반기문 대당론’에 불이 붙자, 이에 제동을 걸 충청권 인사로 이 의원이 꼽히는 것이다. 이 의원이 국무총리를 맡았던 참여정부 당시 반 총장은 외교부장관을 맡아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여론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반기문 저격수란 역할을 맡는다 해도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의원의 영향력이 반 총장을 지지하는 JP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에서도다.

실제 이 의원의 출신지는 충남 청양이지만 13~17대 국회까지는 서울 관악을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고향에서는 초등학교만 나온 뒤 서울로 옮겼다. 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기에 충청 연고를 주장하기엔 근거가 약한 편이다.

또 최근 이른바 ‘퇴비’ 사건으로 지역 민심도 이 의원에게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이 의원이 자신의 집 주변에서 퇴비 냄새가 난다고 세종시청에 민원을 하자 부시장까지 출동해 퇴비를 모두 걷어내 민심을 산 바 있다. 이 때문에 과연 이 의원이 충청바람을 일으키려는 JP와 반기문 총장의 연합에 맞설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더민주 지도부가 그나마 충청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인사인 이 의원에게 충청권 대선전략을 맡기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충청권 공략을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도다.

당 관계자는 “충청권에서 이 의원보다 오래 상징성을 가졌던 정치인이 우리 당에 없지 않느냐. JP보다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마 복당 후에도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대선 국면에서 ‘책사’ 역할을 맡으며 조용히 움직이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당내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이었던 세종시당위원장을 이 의원이 다시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이밖에 당직을 맡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추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은 역할을 맡지 않아도 알아서 너무나 잘하실 것 같다. 두고보자”며 “아마 울타리를 넓게 치는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도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서 아픈 세력이 약해져 왔는데, 이제 ‘추미예표’ 통합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이 의원 복당에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

### 반기문 “박 대통령, 4강 외교 잘하고 있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4강 정상 외교, 4강 정상 간의 소통, 북핵문제 충격에 따른 대응,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반 총장이 박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4박5일 간 밤미 도중 정세균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와 함께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 총장과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반 총장은 또 지난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직 수행에 대해 “국제 외교무대 수장으로 마라톤 42.195km를 거의 100m 속도로 주파한 느낌을 가진 수백에 없었고 실제로 그런 자세로 일했다”고 자평했다. /뉴스

